

전북자동차 춘계포럼 개최

군산시, 거점단지 성장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포스트 코로나 자동차산업현황 · 기업생존 전략 모색

군산시가 미래자동차산업의 거점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해 춘계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제37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업대표, 전북자동차포럼 및 미래형 친환경 미니를 리더스터 회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자동차산업현황 및 기업생존 전략을 주제로 사단법

인 전북자동차포럼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전망,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자동차 기업 등의 생존전략에 대해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 등 자동차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육성전략을 모색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의 세계 자동차 시장 판세를 분석하고, 기존 자동차 공장은 고임금 수준에 맞는 생산성 향상 및 고급 제품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미래차 전환에 따라 기존 중소자동차부품업체들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에 진입이 가능하겠으나 한계가 있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형화 ·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기존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북자동차포럼은 지난 2002년 11월 옛 대우자동차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하면서부터 전북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과 전라북도, 군산시, 주요 혁신기관, 완성차 및 관련 협력업체 등이 모두 참여한 민간 포럼으로 설립됐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옥서면은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박철순씨 집에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군산시 옥서면,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존경과 감사 전달

군산시 옥서면은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박철순씨 집에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일 밝혔다.

옥서면은 6월 ~ 8월 중 관내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유족 14명의 가정에 방문해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실시됐다.

명패를 전달받은 국가유공자 유족

은 “나라를 지켰다는 자긍심으로 생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잊지 않고 직접 집에 방문해 명패를 부착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섭 옥서면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가정에 명패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코로나 극복 위해 ‘방역집중 참여운동’ 추진

오택림 부시장, “6월이 마지막 고비”... 참여 독려

익산시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해 6월 한 달간 익산시 민방역집중 참여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범시민 방역집중 참여운동은 60세 이상 코로나19백신 접종대상자의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6월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하게 됐다.

오택림 부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익산시민들에게 6월 한달간 이동자제, 모임자제, 예방접종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집중 참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의사회와 협의를 거쳐서 기존 입원환자에 사전검사 절차가 강제되지 않고 있는 관내 48곳

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입원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택림 부시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 끝이 보인다”면서 “우리가 격변의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린 만큼 6월 한 달간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집중 참여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1일 0시 기준, 익산 한 달간 익산시민 방역집중 참여의 달을 운영한다. 산시 총 확진자 441명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122명으로 약 30%에



익산시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해 6월 한 달간 익산시민 방역집중 참여의 달을 운영한다. 산시 총 확진자 441명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122명으로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논란에 사과

조남석 익산시의원(이하 조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욕설을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사무감사 질의 시행정 및 언론매체 등에서 본인의 질의를 사실성, 현실성, 경제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꾸길 부탁 한 바가 있는 데 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한 것이 주관적인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포문

을 열었다.

조 의원은 “단지 행정사무감사 시 짧은 질의시간내에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상호 간의 여유있는 대화나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순간적으로 조급한 마음에 말을 인용해서 질의하다 보니 막말이나 갑질이나 하는 말과 보도가 나가게 되었으며 이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정중히 밝혔다

한편,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국민혈세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익산국



가식품클러스터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12여년 정도 역사가 지나갔는데도 100여개 이상 업체와 MOU 체결되고 41개 기업이 유치된 것 뿐이 없을 정도이기 시민의 대표로서 10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을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 순간적으로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 전물군경유족회, 군경묘지 정화활동

익산 전물군경유족회(지회장 박연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원 30여명과 함께 2일 팔봉 군경묘역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팔봉 군경묘역과 인근 현충시설을 찾는 보훈가족과 참배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군경묘지의 비석 닦기, 화병의 조화 교체, 정화활동, 6610 무념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연호 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민분들이 주변의 국립묘지, 현충시설 등을 찾아 참배하고, 주변 보훈가족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감사

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전물군경유족회는 6.25 및 나라사랑 순회사진전, 현충시설 개보수 등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선양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군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진행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원광대, 제1기 원대로 모교방문단 출범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제1기 원대로 모교방문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교방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기획된 원대로 모교방문단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관심이 높은 152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학의 주요 성과 및 학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원대로 모교방문단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해 원광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후배들을 대상으로 입학관리처와 연계해 입시상담 등을 추진한다.

특히 V-log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활동을 병행해 대학 홍보는 물론,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입시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위촉장을 받은 남다영(경찰행정학과) 학생은 “대학 대표로 모교를 방문해 우리 대학과 학과 자랑거리를 알린다고 생각하니 큰 사명감이 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